

여섯째 주 :뜻이 이룬 것 같이

오늘은 기도문 강해 6 번째 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구절에 대해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6 :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애요?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 자신을 비롯하여, 네 가정, 네 이웃, 네 사업, 네가 속해 있는 사회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이루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로의 초청” 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할 그 사역에 동역자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은혜로운 개념이, 청지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을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은혜로운 개념이, 청지기 개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이 땅위에서 살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공급하시어 결국은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가 누리는 자유를 중심으로 하여 이 구절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I. 청지기의 개념

여태까지우리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이해 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 시간, 재능을 주셨는데, 그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사고 방식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성서적 의미에서 바른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신분이 종입니다. 그렇지만 청직기는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주인을 대신하여 다른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의 위에 있지만, 아직도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에게 굴복합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감독뿐이 아니라 충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되면 충성될 수록 자유로와 집니다.

1. 아담의 청지기 직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창조되었을 때 부터 청지기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부너 고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창세기 1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2. 신약의 청지기직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 :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 As every man hath received the gift, even so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이 구절에서 청지기는 oikonomos(=steward)인데, 이 oikonomos(=steward)가 고전 4:1 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 :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Let a man so account of us, as of the minister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비밀을 맡은 자에서 “자”가 청지기 oikonomos 입니다.

그래서 신약 의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청지기 들에게 맡기셨습니다.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청직이 개념은 시간, 물질, 재능과 소유를 넘어 자기 자신까지 포함합니다. **청지기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의무나 책임감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과 의무로 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청지기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이 땅위에서 살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공급하시어 결국은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 6 :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지기들의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더욱 풍성하도록, 더욱 자유로와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청직이로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9:44)

내 것이라고 움켜지려고 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신뢰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 수록 자유로와 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 : 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0 :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 :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대상, 사람, 재물이나, 명예나, 기타의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것이라고 움켜질 때, 그 것으로 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더욱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제기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 전체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 : 41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마가복음 12 :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마가복음 12 :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 : 44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2 : 44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부자가 드린 많은 것 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전체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전체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재물로부터, 명예로부터, 자신으로 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쏟아 놓으면 자유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께 전체를 드릴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청지기임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짐으로 부토 해방되어 우리의 영이 창공을 훨훨 나르는 자유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 :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II. 실패한 사람(14:58)

성경에는 자신의 소유에 노예가 된 비극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 복음 18:18-23 을 읽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 : 18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 :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 :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 :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누가복음 18 :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18 :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구절들을 이해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부자들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걸식 수도사가 되어 떠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 되어, 어떤 시대에는 무리를 지어, 동냥을 하러 다니는 수많은 걸식 수도사로 인하여, 로마의 거리가 넘쳤다고 합니다. 동기가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자기 것을 다 남에게 주고 얻어 먹으러 다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관원에 있어서의 비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원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고, 물질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 덕스러워 보일 만큼 큼직하게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 :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하실 때

누가복음 18 :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원의 비극은 소유를 많이 가졌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였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부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 : 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관원이 자기의 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의 노예, 정치적 욕망의 노예,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연조가 깊어지면서 점점 새로와 지지 않으면, 걸사람은 왕성해지고 속사람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점점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진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비대하였지만 그것을 support 해 주어야 할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윤리 의식의 결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윤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비극은 우리의 부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나, 건강을 잃는다던가, 혹은 그가 죽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비극은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죽어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후패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터 매일 매일 점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고린도후서 4 :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교회를 점점 하늘나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장한 신앙 생활겉사람이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가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청직이로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III. 청지기는 제자와 같은 의미

깊이 생각해보면, 청지기는 신약의 제자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청지기로 임명하셨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 제자 훈련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 : 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 :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청지기로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나 제자의 개념은 교회 안에서 목회의 동역자보다 훨씬 범위가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청징기와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의 세계에 새로운 닳을 내리고, 자유와 은총과 행복과 기쁨의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로서 제자로서의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청징이로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충만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 10 : 10 □□□ □□ □□ □□□□□ □□□ □□□□□□
□□□□ □□ □ □□ □□□ □□□ □□ □□ □ □□□ □□ □□□ □□□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자신의 소유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청지기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 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4:07)

IV. 청지기 와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과 같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하신, 이 땅위에서의 천국은 옛사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하는 염려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질병의 공포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의 지배에서, 의식주의 염려에서,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유의 상태를 안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땅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줄수 있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땅이 천국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는 곳이 천국이 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5:36)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이 땅위에서 살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공급하시어 결국은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V. 청지기와 제자의 자유

옛사람으로 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씀드렸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고, 무엇을 먹을 가 무엇일 입을 가의 염려로 부터의 자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를 강해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병의 공포로 부터의 자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가장 큰 걱정의 하나는 질병의 공포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질병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공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질병의 공포로 구터 자유를 줍니까?

시편 91 : 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 : 4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시편 91 :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시편 91 :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91 : 7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는 제 육신의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죽음으로 부터 자유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사람이 죽음으로 부터 얻는 자유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는 죽음이 영원히 없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과 몸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구절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생명인 영생은 영원히 죽지않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육신의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을 죽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 :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 4 :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벗는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보좌 심판 후에 있을 둘째 사망을 더 두려워 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있을 백보좌 심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 :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 :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 :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백보좌 심판 때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 : 28-29)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지 않는자들도 몸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곤 자기의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 :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 :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 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 후에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첫째 사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둘째 사망을 더 두려워 합니다.

우리가 지나야 할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시 더 나은 차원으로 들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 :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내게는 더 좋다, 바울은 이세상을 장막으로 삼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시 영혼과 육체는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다시 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로 부터 변화를 통하여,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나라가 이 땅위에서 실현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